

목탁 대신 찬송가?... '불교사학' 동국대에 무슨 일이

민노총 소속 청소근로자 '근로장학생' 대체에 반발
점거 농성 중 목사초청 예배

학생들 '부적절' 여론 확산
근로자 "다른 의도 없었다"



동국대 민노총 소속 청소근로자 일부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대학 본관에서 지난 4일 목사를 초청해 기독교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CCTV 입수 영상



동국대 민노총 청소근로자들이 학내에 게시한 현수막.

동국대학교 민노총 소속 일부 청소 근로자가 점거 농성 중이던 대학 본관에서 목사를 초청해 기독교 주일예배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업 이유와 상관없이 불교종립대학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동국대 본관 CCTV 영상을 보면 정년으로 퇴직한 청소근로자를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려는 대학측 계획에 반발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이 대학 민노총 소속 청소근로자 40여 명이 일요일이던 지난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인 정진우 목사를 초청해 주일예배를 진행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타종교 행사는 보통 종교 간 화합 차원에서 대학 측의 양해하에 이뤄지는 게 보통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동국대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일부 개신교도의 전도 행위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종립대학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는 3월 개강 전에 미화원(청소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목사를 초청해 주일예배가

지 본다는 것은 불교종립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소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 이번 주일예배가 부적절했다는 여론은 학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학과 A 학생은 "부처님 성상 앞에서의 예배는 불교학과 학생이자 불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B교수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이 훼손될 수 있고,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우려했다.

반면 청소근로자 측은 "파업 참여자 중 일부 기독교 신자의 요청으로 예배를 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말 청소근로자 86명 가운데 8명이 정년(71세)을 맞아 퇴직하자 이들을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기

로 했다. 학교 측은 올해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기존 청소근로자 업무량 증가없이 고용보장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근로자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7명은 정년 퇴직한 인원의 충원

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날까지 보름 넘게 본관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자보와 현수막을 통해 "청소근로자들의 빈 자리를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할 경우 청소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은 악화된다"면서 "청소근로장학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파업에 참여한 청소근로자들이 교내 청소에 나선 학교 교직원들의 청소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목격되면서 구성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의 반시장적 이권개입이 대학과 청소근로자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들이 예산 감축을 위해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타 사업장에 악영향을 우려한 대규모 운영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채용추천권과 징계권을 민노총 측에 주면서 실제로 학교 측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파업에 불참했다는 한 청소근로자는 "대부분이 71세 정년까지 일하는 걸로 봐선 급여 등 복지수준이 그리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인사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 농성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1일 오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포항 지진에도 산업계 '이상無'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피해 전혀 없어... 공장 정상 가동"

11일 오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이날 "지진 발생 직후 반도체 라인이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화성·평택 공장장과 충남 아산의 온산 공장 등에서는 지진 진동으로 인한 일시적 장비 중단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지진 이후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의 피해 여부를 파악한 결과 가동 중단이나 직원 대피 등 피해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진동에 민감한 일부 반도체 장비가 지

진을 감지하고 자동 가동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즉각 재가동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 인근 울산에 공장과 조선소가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현대중공업 역시 "현재로서는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피해 없이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에 공장이 있는 현대제철 역시 특이사항 없이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다.

SK이노베이션과 효성 등 울산공장이 있는 정유·화학업체도 "지진 피해없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벽 5시3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으로 기상청은 파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2018.02.05 준법감시인-0286심의결 (유효기간:2018.02.18)

우리은행 since 1899

더 완벽한 내일을 위한 4일간의 멈춤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더 좋은 금융서비스 많이 받으세요"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한 금융거래 일시중단

2018년 2월 15일(목) 00시 ~2018년 2월 18일(일) 24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중단업무

- 체크카드 사용 불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CD/ATM) 등 사용 불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일부 제한(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만 가능)
- 우리은행 및 타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출금 및 이체거래도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세뱃돈 등 필요한 현금, 수표는 2월 14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 중요한 자금결제는 사전에 완료해주세요
- 해외여행경비 등 필요한 외화는 미리 환전해주세요

얼리버드 환전 이벤트 일찍 환전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2월 1일~2월 14일 기간 중 (이벤트 기준금액 USD 300불 이상)

1. 영업점에서 환전한 체크카드 보유고객
2.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환전하고 14일까지 수령 완료한 고객

리모와 토퍼즈 캐리어 (2명)

애플 에어팟 갤럭시 아이폰X 중 택1 (5명)

여행용 파우치 10종 (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0명)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을 참고해주세요. * 사은품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